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31일~11월 1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엑스포박람회장과 디오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으며, 2016년 제13회 전국대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열리는 자율관리어업 최대의 행사이다.

10월 31일 2시부터 여수엑스포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 행사에는 입장 퍼레이드, 대회사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자율관리어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가 상영된다. 정부포상은 대통령 표창(3)을 비롯, 국무총리, 해수부장관 표창이 다수 수여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여수에서 열리는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포스터.

에서 생산한 수산물 전시 및 우수공동체 활동 사진전을 비롯, 유명 연예인의 축하공연과 장기차량도 펼쳐진다.

다음날인 11월 1일에는 9시 30분부터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에 이어 회원과의 대화, 수산유관 기관장 포상, 경품추첨 순으로 행사가 이어져 12시경 모든 일정이 종료될 예정이다.

### 2018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 신청 공동체 중 11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는 2018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아 현지 확인 점검과정을 거쳐 11월 중 본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공동체는 2018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가 확정된 선진공동체 중 그동안 선진등급에서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고 공동체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인 공동체이다.

특별사업비를 신청할 공동체는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고 성공모델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사도를 경유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별 1회에 한해 총 10억원(자부담 포함) 한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성공모델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포항시 구만2리공동체, 울산 주전공동체 방문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울산 주전공동체 강원보 위원장이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경북 포항시 구만2리공동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9월 11일 울산 주전공

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주전공동체 강원보 위원장은 공동체의 활동상 등 성공요인을 소개하고,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수산업회 조용현 컨설턴트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 김진권 과장은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한국수산업회에서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수산업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수산업회로 연락해 주시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입니다.

- 분쟁조정 사례접수 -

- 대 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및 관련 단체
- 내 용 : 공동체간 분쟁 및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문 의 :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팀(02-589-4604)

### 수산정책실장에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 임명



수산청장, 수산정책실장에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을 임명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박준영 대변인, 해양정책실장에 최준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정책실장에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을 임명했다.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기술고시 30회로 수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등 수산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업무 추진력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산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p><b>어장관리 활동</b></p> <p>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p>	<p><b>자원조성 활동</b></p> <p>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p>	<p><b>경영개선 활동</b></p> <p>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p>	<p><b>질서유지 활동</b></p> <p>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p>
---	--	---	--

### 경남 거제시 관내공동체 위원장 30여명 대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정책교육 실시



경남 거제시 관내 30여명의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 교육이 지난 9월 5일 경남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정책교육에서는 한국수산업 양문주 부장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거제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 해안가 대청소



거제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서경수)는 초록빛 바다가꾸기의 일환으로 9월 10일 거제시 사등면 사곡해안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부자, 페로프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거제시를 통해 처리했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이날 해안가 대청소는 손길이 잘 닿지 않는 후미진 곳까지 전 회원이 합심하여 정화활동을 펼쳤다.

### 삼천포외줄낙시 자율관리공동체, 삼천포항 정화활동

삼천포외줄낙시 자율관리공동체 직원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삼천포(위원장 천기현)는 9월 11일 사천시 어업정보통신국 직원들과 함께 어업 삼천포항 해안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폐자재 등을 공동체 회원들은 이날 사천시 수산과 수거해 처리했다.

### 통영 감성돔자망 자율관리공동체 치어방류 행사



통영 감성돔자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석규)는 8월 31일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해역에서 공동체 회원을 비롯, 통영시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통영관내 수산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성돔 치어 7만미를 방류했다. 통영 감성돔자망 자율관리공동체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공동체 전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어방류 행사를 지속적 갖고 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업이 도와드립니다.

## 2018년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중국

### 중국 산둥성 대규모 축제식 양식장, 전복 연구센터 등 견학

금년도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위해, 영성)에서 진행됐다.

이번 중국답사에는 2017년 신규참여 공동체 어업인 11명을 포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단은 중국의 양식 및 수산가공 대기업인 호당가 집단유한공사(호당가 그룹), 산둥대학교(위해캠퍼스) 해양생물연구센터, K-FISH 앵커숍 '위해 한락방', 국가해산패류기술연구센터 등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먼저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 위치한 호당가 집단유한공사를 방문했다. 이곳은 연간 10만톤의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국 유수의 수산물 대기업으로, 초창기 어선어업으로 시작하여 양식업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호당가그룹은 산둥성 영성시 석도항을 중심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식장에서는 해삼을 주종으로, 새우, 전복은 물론 해파리까지 양식하고 있다. 축제식 해삼양식장을 조성할 때에는 인근 8개 마을을 집단 이주시켜 대규모 양식장을 조성했다고 한다.

이어 방문한 산둥대학교(위해캠퍼스)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의 양식수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시설로, 전복을 비롯, 고급 어패류 신제품 개량과 육종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위치한 산둥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의 단체사진



해상펜션을 갖춘 어촌체험장 모습.

특히 이곳에서는 육상에서 바닷물 순환시스템을 통해 전복을 양식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확립될 경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없이 연중 육상에서 안정적인 전복 양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한국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위해에 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 앵커숍(Anchor Shop) 역할을 하는 '위해 한락방'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 한락방이 위치한 곳은 위해의 중국 속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곳이다. 현재 중국에는 상해,



연수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안, 위해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해에서 한국 수산물 전문 판매점은 이곳이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국가해산패류기술연구센터. 이 연구센터는 패류전문 연구기관으로, 위해에서 양식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국가 연구시설이다.

현재 뉴질랜드 전복과의 교배를 진행하여 성장이 빠르고, 건강한 육종전복 생산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20cm 이상의 어미 전복을 뉴질랜드에서 들여와 중국산과 교배를 통한 중



국가 해산패류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단위 실외 중간육성장 모습.



도기로 만든 중간 양생기에 부착된 전복 종묘.



산둥대학교 교수로부터 전복 교배에 대해 설명 듣고 있는 연수단.

요 생산을 연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복과의 교배를 통해 생산된 전복은 저수온에 강하며, 고수온에서도 성장이 빠른 육종전복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간 4회 산란유발과 종묘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산란유발은 수온조절이 아닌 광주기 조절로 하며, 현재 연간 500만개 이상을 전복 양식업계에 공급하고 있다.

특별기고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국 연수를 동행하며

해외 선진지 연수 목적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나라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거나 도입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다양한 환경 여건과 다양한 어업 형태, 소비자 수요와 공급 방법, 생산 형태 등이 각기 달라 해외 연수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산둥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국 연수를 동행하며 중국 수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다.

### 대기업 수준의 호당그룹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호당가 집단유한공사(HOMEY GROUP, 이하 호당그룹)는 기업형 양식체제의 표본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지난 1992년 12월 설립된 호당그룹은 위해시와 영성시가 맞닿은 해안가에 자리한 축제식 양식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해삼과 새우, 전복은 물론 해파리양식장을 운영하는 대규모 양식 기업이다. 축제식 양식장을 수년간 확대 개발해 현재 자체 항구까지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양식용 종묘 생산과 양성, 가

공, 유통시스템까지 갖춘 중국내 최고 수산양식 기업이다.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까지가 축제식 양식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펼쳐진 축제식 양식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두리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해삼 종묘 중간육성은 물론 해파리 양식장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곳의 해삼 종묘 생산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보다 많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수산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단은 이곳에서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 집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호당가 그룹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의 편의시설 역시 이 그룹에서 직원들을 위해 조성했다. 이것이 도시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수산분야 연구 확대하는 산둥대

산둥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위해시는 중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휴양도시이지만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탁희업  
한국수산경제신문  
편집국장

와 다양한 인연을 맺고 있다. 최근 위해시가 휴양도시에서 소비 교육 이곳에 위치한 산둥대학 위해분교 역시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출 수산물인 전복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달해 우리나라 전복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위해분교 내 해양수산원(우리나라의 해양수산학과)에서 전복 육종을 연구하는 후육광교수는 성장이 빠르고 건강한 육종 전복 생산에 성공해 인근 지역 전복양식장에 종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육종 품종은 2~3년 전 전남 완도지역에서 슈퍼전복으로 각광(?)받았던 전복이기도 하다. 뉴질랜드에 유학해 전복연구를 시작한 후 교수의 해양생물번식육종연구소는 대학에서 직접 투자해 신설한 사육동으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재 전복과 해삼은 물론 해조류 연구까지 실시하는 알짜 연구소로 성장했다. 매년 뉴질랜드에서 모패를 들여와 중국산 암컷과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육종전복은 우리나라의 참전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다. 전복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자체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의 전복 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 우리 바다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의 기항지 석도항

해상왕 장보고가 활동했던 법화원이 자리한 석도항은 산둥성내에서도 해상 운송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기 여객선이 드나들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어업전진기지로서 각종 수산물 생산과 보관 운송도 겸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우리 태극기를 달고 있는 수백척의 어선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 바다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의 기항지로서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3곳의 어항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목선과 철선, 어선명조차 알아볼 수 없는 낡은 어선과 수백톤급 어선도 혼재돼 있다. 중국 수산물 생산의 근간을 담당하는 이들 어선들은 보는 것 만으로도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양적으로 열세인 우리 수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

### 10월 23일까지 공모 ... 연말에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9월 11일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해수부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어촌뉴딜300사업 조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1일 정부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맞춤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내용과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모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했다.

공모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주간이며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해수부,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 확보 지원

###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추천서 9월 19일부터 발급

정부가 수산분야의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돼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항구에서 작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격 요건은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9월 14일 태안 몽산포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해양쓰레기 수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해수욕장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개 국가에서 약 5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념사를 비롯, 해양정화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 '해양수산 취업의 장' ... 2018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



2018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가 9월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인천항만공사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자리의 바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9월 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과 9월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

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했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열렸던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총 77개의 기업·협회, 40개의 공공기관, 2,500여명의 구직자·학생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통해 약 7,000여건의 취업·진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말까지 참여기업 등에 110여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준호 의원, 위성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연합회가 주관한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전국조합장동시선거,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 위탁관리

정부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이같이 위탁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전국의 농·수협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있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2018.9.21.)부터 선거일(2019.3.13.)까지다.

선거관리가 선거관에 위탁되는 시점인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 공동체 탐방 / 제주 김녕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으로 화합 다진 최대 규모 공동체 ... 김녕항 개발로 제2의 도약 준비



한경호 제주 김녕공동체 위원장.



김녕공동체 회원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물질작업 전 해녀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한경호 위원장.



최근 제주 해안으로 밀려 들어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갯벌이 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한 김녕공동체는 해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어촌계원 650여명 중 해녀 140명으로 조직된 김녕공동체는 460여ha의 마을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동체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동-서 김녕으로 나뉘어져 있던 김녕어촌계는 지난 2000년 1월 합병하면서 재산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나 2006년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계기로 화합의 초석을 다져왔다.

각동 해녀회장으로 구성된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월 두차례씩 작업 전 조업에 관한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적극적인 자원 및 어장관리에 힘을 모았다.

특히 마을어장을 8개 구역으로 나눠 매년 어장을 바꿔가며 밀어내기식 채취작업을 함으로써 좋은 어장, 나쁜 어장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김녕공동체는 어장 합병을 계기로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어촌계원이 공동으로 채취작업에 참여한 후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전체 소득의 20%를 고령으로 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에게도 고루 분배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젊은 해녀와 고령 해녀들의 역할을 해상(채취)과 육상(건조) 활동으로 분담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

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수년간 통계의 의하면, 조업중 사망사고를 당하는 해녀는 연 평균 9명으로, 우뭇가사리 조업시기인 4~6월에 전체 사고자의 40%가 집중되고 있지만 김녕공동체는 이같은 나눔과 배려의 조업활동으로 20년간 해녀 사망사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김녕공동체는 제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올해 제주바다환경대상의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상을 수상함으로써 모범공동체로서의 이름을 높였다. 바다 환경을 가꾸고,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 온 김녕공동체는 올해 6천만원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 바다정화활동을 펼친데 이어 내년에는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우리바다를 우리가 지켜갈 계획이라고 한경호 위원장은 밝혔다.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녀의 고령화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소득창출이 절실한 실정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되는 김녕항 개발에 발맞추어 해녀체험장, 낚시체험장 조성하고 함께 전국 최초 요트마을 운영으로 제2의 도약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째 어촌계장을 맡아 김녕공동체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 한경호 위원장은 '해녀와 요트'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발전 모델 마련에 오늘도 회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